


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<div>과목명</div> <div>한문문제풀이정답 (11회~15회)</div> | <div>한문시험</div> | <div>감독관 확인</div> |
|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|---|
| 시행 : 11월 28일(일) | | 수험 번호 | 성 명 | | 인 |
| 문항/ 0시간 | 문항: | | | | |

한문문제풀이(11회)

- 01.③
02.人, 己, 己, 人, 長, 短
03.②
04.③
05.③
06.③發
07.④由
08.⑤祿
09.②恥
10.②知
11.③事業
12.①殆
13.③回
14.⑤害
15.③적
16.②추
17.④單
18.①味
19.③文學
20.⑤因
21.生
22.來
23.弓
24.吠
25.撐
26.潛
27.犢
28.竹
29.月
- 30.鏡
31.(비) 주다
32.가까운사람寺人勃鞞
33.시인발제에게 국정을 물은 것(공론화하지 않은 것)
34.管仲
35.보이다.과시하다.
36.霸
37.대의 명분
38.原
39.晉門公
40.趙衰

한문문제풀이(12회)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1.㉔ | 35.弋 |
| 02.㉓ | 36.老 |
| 03.㉔ | 37.天地 |
| 04.㉓ | 38.교착하고 종합하여 (사람을 평가하다) |
| 05.㉔ | 39.舞雩 |
| 06.㉔絶 | |
| 07.㉑具 | |
| 08.㉔勝 | |
| 09.㉒義 | |
| 10.㉓斷 | |
| 11.㉔由 | |
| 12.㉓ 竊 | |
| 13.㉑止 | |
| 14.㉒敎 | |
| 15.㉑棄 | |
| 16.㉑克(好勝) | |
| 17.㉒居 | |
| 18.㉒驕 | |
| 19.㉔成 | |
| 20.㉒要 | |
| 21.㉓眼 | |
| 22.㉔門 | |
| 23.㉔澤 | |
| 24.㉔和 | |
| 25.㉒妻 | |
| 26.㉓變 | |
| 27.㉔賓 | |
| 28.㉔長 | |
| 29.㉑黑 | |
| 30.㉒扶 | |
| 31.隱逸.富貴.君子 | |
| 32.衆 | |
| 33.臨 | |
| 34.잡 | |

한문문제풀이(13회)

- 01.①
- 02.③
- 03.②
- 04.④
- 05.②
- 06.②直
- 07.⑤愧
- 08.①厚
- 09.⑤孫
- 10.②爭.黨
- 11.⑤試
- 12.①是非
- 13.③民
- 14.③隱
- 15.④溫.敬
- 16.率
- 17.捨
- 18.兄弟 魯 周公之後 衛 康叔之後
- 19.證
- 20.임금된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말에 예라고 대답하며 누구도 내말을 어기지 않는 것을 즐거워한다
- 21.④燈
- 22.①風
- 23.③掬
- 24.②白
- 25.④情
- 26.④寺
- 27.②舞
- 28.④成
- 29.③獨
- 30.⑤看
- 31.제생각에는?
- 32.商鞅
- 33.국가에 쓰여짐을 기뻐하다.

- 34.張儀
- 35.楚.燕.齊.趙.韓.魏
- 36.六國
- 37.穆公.孝公.惠王.昭王
- 38.④膏腴之壤의 의미는? 기름진땅(沃土)
- 39.⑥蠶食을 우리말로 번역하면?(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다)
- 40.秦皇

한문문제풀이(14회)

- 01.②
- 02.③
- 03.③
- 04.⑤
- 05.④
- 06.①孚
- 07.⑤加
- 08.③直
- 09.⑤遠
- 10.②名
- 11.①遠
- 12.④細
- 13.④獨
- 14.②衆
- 15.④月
- 16.南
- 17.憂
- 18.德
- 19.師
- 20.恭/難
- 21.②金
- 22.①天
- 23④連
- 24.刀
- 25.草
- 26.月
- 27.露
- 28.歸
- 29.筆
- 30.돕다(助)
- 31.(桓)公
- 32.及.終 흘
- 33.鮑叔(牙)
- 34.宰相
- 35.인정이 없으니

36.모두 헤아리다/모두 조사,책망하다

37.은 몸이 된 후에도 임금에게 직언을 간함. 위(衛)나라 영공(靈公)은 어진 거백옥을 등용하지 않고 불초한 미자하를 신임했음. 사추가 옳은 말로 이를 간했지만 듣지 않았음. 사추는 임종할 때 아들에게 신하된 직분을 못했으니 예법대로 장사지내지 말고 시체를 창문 아래에 그대로 두라고 유언했음. 영공이 조문 왔다가 이 말을 듣고 깨달아 거백옥을 등용했다는 고사에서 나옴.

38.답지 vs 答紙(답안지)

39.각출

40.교란

한문문제풀이(15회)

01.①

02.⑤

03.⑤

04.④

05.⑤

06.③晚

07.③勝.矜

08.①棄

09.④進

10.③兵

11.⑤參

12.⑦懷

13.①身

14.③賢

15.⑧信

16.⑥類

17.⑨安

18.②志

19.⑩及

20.④遠

21.火

22.郎

23.動

24.送

25.蟀

26.下/上

27.甘/故

28.千/一

29.書/棘

30.送/來

31.天

32.性

33.舒

34.平

35.故

36.密

37.顧

38.及

39.너의 자식을 사랑하라.

40.人